勢불리기 이어 민생·정책 행보… 文-安, 주도권 싸움 2R

<문재인>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인재영입 경쟁에 이어 5일부터 민생·정책행보에 적극 나서며 야권 재편 주도권 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일단 문 대표는 이날 세 번째 외부 영입 인사로 이수혁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를 공개했다. 먼저, 영입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이 각각 문 대표가 주장했듯이 '정의'와 '혁신'을 상징했다면, 영입 3호인 이 전 수석대표의 테마는 '외교 안보'다. 야당은 17대 국회에 정의용 전 제네바 대표부 대사와 18대에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 전문가가 있었지만, 19대 국회에는 정통 외교관료 출신이 전무했다.

문 대표는 또 민생·정책행보에 돌입한다. 문 대표 측 관계자는 "문 대표는 이번 주 일본군 위안부,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같은 현안 행보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6일 최고위 회의에서 위안부 및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문 대표는 또 새해 첫 민생행보로 중소기업 현장을 찾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2법(서비스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노동개혁 5법 등에 대한 통과 요구에 관한 비판적 행보로 읽힌다.

아울러 문 대표는 이달 중순쯤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경제실정 및 위안부 문제 등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일단 문 대표의 신진인사 영입에 맞서

더민주

'영입 3호' 이수혁 前수석대표 입당

최고위, 정부 위안부·누리예산 비난

安 신당

환경미화원·어린이집 학부모 만남

내일 파주 도라산 GOP 방문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김성식 전 의원 등 과거의 동지들과 다시 손을 잡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안 의원은 나아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역 인근을 찾아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새해맞이 청소 및 간담회를 하면서 민생행보에 고삐를 조였다. 안 의원은 청소 중간마다 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특히 안 의원은 여의도를 제외한 영등포구 전체를 140명의 미화원이 청소하고 있다는 얘길 듣고 "여의도가 정말로 깨끗한 청소가 필요한 곳인데요"라며 인적 쇄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엔 서울 구로구 수잔나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예산 삭감 관련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안 의원은 "보육에 대한 철학이 필요하다. 보육은 비용이 아니라 한국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한국 복지에서 가장 큰 문제가 국가에서 (비용을) 감당하겠다며 제도화한 다음 실제로는 민간에 떠맡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 논란 때문에 많은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등이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 저를 포함해 정치권 전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책임지고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부터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의원은 오는 7일엔 경기 파주시 도라산 인근 GOP를 방문한다. 더민주 등 현 진보 야권세력들은 물론 새누리당 또한 안보 분야에 있어 성과가 없었음을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청년 주거 대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청년 간담회를 하고 종교계 인사들과의 신년 인사를 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민주 탈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광산갑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5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선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광산 갑 당직자와 권리당원 등 1000명의 탈당계를 제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신당 세력들 광주로… 광주로…

김한길 "조만간 安신당 합류"

천정배, 광주시당 준비위 발족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을 탈당한 김한길 무소속 의원이 탈당 후 첫 지역 방문지로 5일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를 방문하는 등 신당 세력들의 호남 민심 잡기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신당 세력들이 야권의 핵심 지지기반인 광주가 갖고 잇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호남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한길 의원은 이날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 서구 양동시장을 들러 지역 민심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이어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남 민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야권의 주도세력을 교체해야 한다는 광주의 민심을 확인했다"면서 "오늘 광주에서 다시 다짐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를 창조적으로 계승해,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하는 데 광주와 호남이 그 전진기지가 되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철수 신당 합류 시점에 대해서는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조만간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어 "제가 어디에 서서 어떤 역할로 당장 구체적 목표인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고민의 요지"라며 "주변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주 조금씩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재영입과 관련한 질문에는 "안철수 의원하고 얘기해 본 적도 있는데 굉장히 고민이 깊다"며 "좋은 사람을 얼마나 잘 모셔오는지가 국민 평가의 기준이 되는 만큼 여러 기준에 대해 이야기 중이고 인재를 '징집'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농담까지 할 정도로 좋은 인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 서구 양동시장을 찾아 상인 등의 민심을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한길 전 대표가 5일 광주를 방문, 5·18 묘역 참배에 이어 양동시장 방문 뒤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한편, 가칭 국민회의 창당을 추진하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이날 열린 국민회의 광주시당 창당발기인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이 호남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야권의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천 의원은 "대한민국 각지에 개혁정치를 원하는 시민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호남이, 호남의 심장인 광주시민의 정치 수준이 높다"며 "호남 개혁정치의 길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호남의 정치 신인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가칭 통합신당 창당을 추진중인 박주선 의원도 이날 광주에서 통합신당 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지역사무실에서 열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호남신당 통합 물꼬 트이나

천정배·박주선 비공개 회동 논의 시작

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 세력과 안철수 신당 등 각각 추진중인 야권 신당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천정배·박주선 의원이 통합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신당 세력 간 통합의 물꼬를 틀지 관심이 쏠린다. 두 의원은 5일 비공개 회동해 각자 세력 간 통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의원의 통합 제안에 천 의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조만간 통합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역정가에서는 나온다. 오는 8일 전 결정해달라는 박 의원의 요청에 천 의원은 "그 안에 답을 주겠다"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우선 천정배 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지사, 원외 민주당 등이 일단 '호남연대'를 이루고 안철수 신당 등 다른 세력, 무당층을 아우르는 통합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신당 합류가 점쳐지는 무소속 김한길 의원도 이날 광주를 방문, 기자들에게 "(신당 세력)이 큰 틀에서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합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야권 신당 통합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또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하나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모든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